



남원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0일 2022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시 재난발생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제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도시가스 남원시점, 남원보건소 등 유관기관·단체 240명이 참여하고 장비는 41대가 동원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붕괴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가동 △재난현장 단계별 대처능력 △단계별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구급 대응 역량 강화 △통제단 현장지휘소 각 부별 대응대책 숙달 등이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재난 발생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이엔플러스, 공덕 경로당에 가전제품 기부

김제시 (주)이엔플러스가 지난 19일 공덕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6개소에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했다. (주)이엔플러스는 1966년 설립된 소망 및 특장차량 생산 전문기업으로 최근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지역에 친환경 전 기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소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35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이며, 카본 나노튜브, 2차 전지 전극, 방열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2차 전지 사업의 매출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이엔플러스 김제 투자사업장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기념으로 공덕면과 자매결연을 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경로당 6개소에 공덕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주)이엔플러스 김태경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공덕면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공덕면 주민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미담보담 청년들, 익산 100년 적산가옥서 전시회

익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모임인 '미담보담'이 100년 된 일본 가옥에 전시회 '우리동네 한바퀴'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가들 ISSUE'에 선정된 소모임 '미담보담'은 20~28일 7일 동안 익산의 원도심 속 폐공간인 적산가옥(갈산동 208-12)에서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 장민지 미담보담 대표는 "이번 전시회는 낙후된 유휴 폐공간인 익산의 적산가옥을 활용해 청년들과 지역의 공간을 연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미담보담은 2021년 전북도문화관광에서 주최하는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예술가들ISSUE 지원 사업으로 춘포대장공작의 빛바람 전시를 기획 운영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가을가을해 공연 열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는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회 가을가을해' 공연을 총 3회 진행한다. 이번 제2회 가을가을해 공연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건물과 작품을 배경으로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 첫 번째 공연은 22일(토) 2시에 지역예술단체인 남원원드오케스트라가 미술관 야외에서 9곡의 클래식 곡과 영화 OST를 관악 협주한다. 11월 12일(토) 오후 2시에는 김병중미술관 특별전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주제에 맞춰 디네투 현악 앙상블이 공연되고, 12월 4일(일) 오후2시에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대표 김지훈)이 주관하는 '화무십일홍'으로 안아, 청춘예찬 매간당 등 총 9팀이 참여하여 풍성한 공연을 준비 중이며, 입장은 모두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김병중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화(063-620-566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통문화고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장원 박현영씨 상금 일부 모교에 장학금 전달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박현영(한국음악과 제4회 졸업)씨가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박현영씨는 2022년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모교인 한국전통문화고를 방문해 상금의 일부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수상의 기쁨을 감사하고 고마움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모교인 한국전통문화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박씨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 학습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공한다면 학교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음악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우수한 예술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이 활용된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택상 교장은 "졸업생이 큰 상을 받은 것만도 학교에서는 기쁘고 영광스런 일인데 이렇게 장학금

까지 기부해 주셨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더 큰 명창이 돼 국악발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는 박씨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을 한국음악과 학생들에게 매 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 경찰의 날 맞아 칠보 충혼탑 참배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20일 오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칠보 충혼탑을 찾아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황동석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칠보출소장 등 11명이 참석해 충혼탑을 참배했다. 정읍 칠보면 시산면에 있는 칠보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 변형식 수력발전소로 1945년에 건설되어 당시 남한 유일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강원 영월 발전소가 적에게 점거된 직후, 남한 일대의 송전 공급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칠보 충혼탑은 敵 2,500여명에 정읍 칠보발전소 일대를 포위하자 당시 경찰 75명으로 탈환한(1951. 01.) 치일혁 경무관의 경찰헌이 새겨있는 곳으로 매년 지역주민과 유가족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배가 거행되고 있다.

치일혁 경무관은 중국 서안일대에서 치열한 독립운동과 광복 후 건국활동 및 625 동안 중 칠보 발전소 탈환, 이현상 빨치산 토벌, 화염사 등 사찰보존의 공을 인정받아 2011. 8. 26. 경무관으로 추서된 호국·문화·인본경찰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황동석 정읍경찰서장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멋지고 당당한 정읍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의회·한우협 장수군지부, 간담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한우협회 장수군지부(회장 채수권)와의 간담회를 갖고, 장수군 한우산업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수군의회 의원 및 장수군 한우협회 회장, 각 읍·면 지회장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한우농가는 물가상승 등으로 사료값과 조사료 작입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부속도 도입 후 축분처리 문제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음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사료로 퇴비실포량 증대를 통한 축분처리 문제 해결과 조사료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체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장수=고관호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멕시코서 무형유산 페스티벌 참가

국립무형유산원(이경훈 원장)은 'K-무형유산 페스티벌'로 멕시코 파나후아토에서 열리는 중남미 최대 규모 종합문화예술축제 '세르비티노 인터네셔널 페스티벌'에 현지 기준 19일 참가해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천여 명의 뜨거운 환호속에 진행된 이날 'K-무형유산 페스티벌'은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무형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 무대로 전 통과 현대, 동서양의 조화'를 주제로 무형유산의 정통성에 기반한 한국적인 창작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김백봉부채춤(김백봉부채춤본회) △판소리 심청가(입과손스튜디오) △남사당놀이(창작 집단 지애) △사자춤(연희정 추리) 등이다. /정은성 기자

인사

- 전북도청** ◇시·군 부단체장 ▲군산 부시장 김미정 ▲익산 부시장 전대식 ▲진안 부군수 김종필 ▲무주 부군수 유호연 ▲부안 부군수 이정석 ◇국장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미래산업국장 오택립 ▲전북연구원 민선식 ◇과장급 전보 ▲기업유치추진담당 양선화 ▲기업애로해소담당 김희옥 ▲일자리경제민생과장 김영식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민숙 ▲창업지원과장 윤세영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 ▲법무행정과장 임재욱 ▲사회재난과장 김영민 ▲체육정책과장 김경철 ▲건강증진과장 김홍표 ▲도로공항공정도과장 김운기 ▲교통정책과장 권민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 ▲농업정책과장 김창열 ▲교육협력추진담당 박현규 ▲대외협력과장 송주심 ▲수산업정책과장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 서재희 ▲장애인체육회 이경영

전주대, 함께 나누는세상과 협약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재단법인 함께 나누는세상(이사장 정창영)과 제휴 협약을 맺고, 비전 멘토링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 떠. 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대학방방, 문화방방, 기관방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탐색해나가는 참여형 청소년 비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주대학교는 지난 9월 11명의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1기 멘토로 선발돼 22명의 고등학생 멘티들과 팀을 이뤄 10주 간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멘토와 멘티 학생들이 기존의 학습 지도 위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를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배 총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청



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 찾고 미래의 진로 개척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멘토링 활동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에 앞장서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낼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신승희 전 지청장·이동민 전 경찰서장, 남원 명예시민증 전달

남원시가 2005년 최초로 명예시민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2명과 내국인 23명에게 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지난 20일에는 신승희 전 남원지청장과 이동민 전 남원경찰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된 명예시민증은 24호와 25호로, 신승희 명예시민은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남원지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동민 명예시민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2년 15일까지 남원경찰서장으로 재임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남원시는 신승희 전 남원지청장과 이동민 전 남원경찰서장이 남원시민의 권익선장과 사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과 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시민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명예시민은 특권은 없지만 남원을 위해



애는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남원시와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우정의 징표"라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천황사서 산사 음악회 열려

20일 진안군에 위치한 천년고찰 천황사에서 '산사 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군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유명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출연자로는 인드라 스님, Junior Beat, 퓨전국악 소리 애, 테너 서지환, 비리핀 정성민, 피아노 최진현, 앙상블 코코PELLI가 무대에 올라 15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행복찬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495호로 지정된 전나무와 익어가는 은행나무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우리군의 문화유산과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정천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성료

진안군 정천면 체육회 및 행정복지센터직원 일동은 지난 19일 정천면 강당에서 선수단과 체육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진안 군민의날 체육대회 정천면 선수단 해단식을 끝으로 몇 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날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2종목 100여명의 선수들은 2주 넘게 밤낮으로 연습하면서 모두 팀업머신을 타고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며 연습에 임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만, 모두가 즐거워졌을 까' 오랜만에 설렌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뀌는건 한순간이었다 기대감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야말로 한바탕 한바탕으로 똘똘 축제의 장이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정천면 주민은 "오랜만에 나오니 밤도 맛있고 경기도 재밌고 이뻐서 몸이 다 나은거 같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